

#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02-313-1632, gensec@women21.or.kr)
발신일	2022년 11월 24일(목) / 총 2쪽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불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

- 일시와 장소 :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1.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2.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저지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전국 800여개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단체들이 모여 지난 11월 8일 발족한 전국 연대체입니다.
3. 11월 23일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 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내일 11월 25일(금)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불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

- 일시와 장소 :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프로그램 : 분야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

## ▣ [참고] 붙임 1.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캠페인 안내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온라인 캠페인]

###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강화해도 모자랄 성평등 정책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어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인권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 촉구하기 [campaigns.kr/campaigns/803](https://campaigns.kr/campaigns/803)

##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개편안 저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